우암학원 창학 70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58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69 2021년 9월 8일 수요일
음력 8월 2일 kwangju.co.kr

‘잃어버린 6년’… 대표 브랜드·킬러 콘텐츠 하나 없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환골탈태’ 시급하다

〈1〉 말 뿐인 문화발전소

행사 290·프로그램 894건 운영
예산 투입에도 뚜렷한 성과 못내
아시아문화원과 이원화와
전당장 직무대행 체제가 원인
전문가들이 책임감 있게 운영
세계적 복합문화기관 발돋움해야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6년째를 맞는 현재까지도 대표 브랜드나 킬러 콘텐츠 하나 없는 ‘문화발전소’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향후 아시아문화원을 흡수·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전당은 설립 목적에 맞는 세계적인 문화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문화전당)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이다.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배경으로 출발했지만 개관 6년째를 맞는 현재까지도 대표 브랜드, 킬러 콘텐츠 하나 없는 ‘허울 좋은 문화 발전소’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행정안전부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조만간 확정되면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을 흡수·통합해 하나의 조직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처럼 통합 문화전당의 직제와 조직개편에 대한 가닥이 잡히면서 향후 문화전당의 본질적 기능인 콘텐츠 창·제작과 유통, 교육, 연구 등에 있어 설립 목적에 부합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환골탈태해 당초 제시했던 세계적인 복합문화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전당은 지난 5년간(2020년 11월 기준) 공연 247건, 전시 139건, 교육 177건, 축제 41건, 각종 행사 290건 등 모두 894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가운데 문화전당이 자체 기획하고 창·제작한 프로그램은 80%인 715건에 달한다. 또한 어린이문화원 상설 전시체험 공간인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계단식 논’이 ‘2021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공간 및 건축 부문 골드위너를 수상하는 등 일부 콘텐츠나 프로그램은 호평을 받기도 했다.

물론 양적인 관점에서는 ‘문화 창조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시를 위한 전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많았다는 비판도 상존한다. 광주의 장밋빛 미래를 견인하는 국책 프로젝트로 출범했지만 그동안 문화전당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가운데는 대중성과 유리된 실험성이 강하거나, 전위적인 작품과 콘텐츠가 많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었다.

지난 2019년 문화전당이 세계를 겨냥해 준비했던 대형 공연 ‘무사’는 수많은 인력과 예산(총 17억)이 투입됐지만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문화전당은 ‘무사’를 제2·제3의 대표 브랜드로 개발해 킬러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렇다 할 성과로 연계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고전소설과 아시아신화·전설 등에 나오는 영웅 캐릭터들을 차용했지만 서사 전개의 개연성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캐릭터의 불명확성 등이 겹쳐 기대만큼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해외 유통을 위한 관련 콘텐츠 제작 등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그동안 ‘무사’ 유통을 위해 강릉시와 논의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국내외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킬러 콘텐츠 부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중심축인 전당의 위상 및 향후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같은 문제는 그동안 제기됐던 아시아문화원과의 이원화 체제 외에도 콘텐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전당장(직무대리)들이 문화전당을 이끌어 온 점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전당장은 비전문가들이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돼왔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당장은 문화적 마인드가 없는 공무원들이 맡다보니 실질적인 창·제작 효과가 없었다”며 “더욱이 조직이 안정되지 않은 데다 장기적인 로드맵도 없어 악순환이 반복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술과 기술, 인문이 융합한 미래형 콘텐츠 제작에 요구되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인력이 거의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문화콘텐츠 주종이 가상세계나 증강세계 분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지만 문화전당에는 뉴미디어에 토대를 둔 ICT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문화전당이 6년째 전당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온데다 아시아문화원의 콘텐츠 본부장, 아시아문화연구소장 등 주요 자리가 1년 넘게 비어왔던 점도 문화전당 정상화에 걸림돌이 됐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이사는 “향후 진행될 통합 문화전당의 채용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전문가들이 채용돼 하루속히 문화전당이 정상화,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광양·순천 중학교서 코로나 집단 감염

2학기 개학과 동시 발생
지역사회 확산 ‘초비상’

광주와 전남 광양, 순천 중학교에서 다수의 학생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교육당국도 전면등교 방침을 정하고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7일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에선 이날 오후 2시 현재 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4332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수 검사 과정에서 13명, 전남대병원 관련 4명, 북구 모 중학교 관련 1명, 광산구 물류센터 관련 1명, 서울 확진자 관련 1명, 광주 확진자 관련 8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2명이 확진됐다. 전날 학생 11명, 교사 2명 등 13명이 확진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선 이날 가족 1명과 학생 1명 등이 추가돼 모두 15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3학년 검사에서 확진자가 쏟아짐에 따라 1, 2학년까지 포함해 모두 312명을 전수 검사했다. 결과에 따라 현재 97명인 자가 격리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도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광양 모 중학교 집단감염 관련해선 가족 8명을 포함해 누적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다. 순천에서는 이날 중학교 2곳과 초등학교 1곳, 고교 1곳에서 각각 1명씩 모두 4명이 신규 확진됐다. 순천 학생 감염 사례 일부는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거나 최근 확진된 부친에게서 중학생, 초등생 학생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학교발 감염이 가족 간 전파 등으로 이어짐에 따라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도민들도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모임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민주, 오늘부터 64만명 선거인단 투표

전체 선거인단 3분의 1 … 초반 경선 레이스 분수령

‘1차 슈퍼위크’ 향배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의 주요 승부처인 ‘1차 선거인단’ 투표에 돌입했다. 총 64만표 규모로, 전체 200만명에 육박하는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1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된다. 결과는 오는 12일 강원지역 경선과 함께 열리는 ‘1차 슈퍼위크’에서 개표된다. 이 때문에 그 결과가 민주당 경선레이스의 초반 흐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순회경선지 충청에서 과반이상의 표를 얻어 압승하면서 긴장감은 다소간 떨어진 분위기다. ‘어후명’(어차피 후보는 이재명)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흥행 요소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청도의 경선 결과로 인해 밴드왜건(선두주자로 지지가 더 몰리는 현상)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각각 문재인 후보가 첫 개표지에서 기선을 제압한 후 마지막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고 최종 선출된 바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충청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 지사에게 밀렸던 충격을 딛고 추격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간 캠프가 당원이나 조직에 집중해왔지만, 앞으로는 국민 일반 여론을 더욱 챙기며 지역민과의 스킨십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